



쿠팡
3분기 매출 10.7조
분기 최대실적
나



Life

치킨업계
스타마케팅 치열
소비자 부담 우려도
L2



인천교육청, 내년 예산 5.3조 편성 학교신증설 등 미래교육 환경 전환

올해 대비 1844억 증액... 3.6%↑
미래교육, 무상교육 지원 등 편성
도성훈 교육감 “학생성공시대 앞장”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 대비 1844억 원(3.6%) 증액된 5조 2915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88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950억원, 기타 이전수입 54억원,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2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문별 세출 예산 현황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5319억 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2560억 원)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6403억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7085억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 경비 등 기타 경직성경비(3조 1548억원) 등이다

먼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5대 교육정책으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618억원 등 총 5319억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신증설 723억원 등 총 256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 지원에는 여름철 냉방요금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3% 인상분을 반영해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4007억원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 2396억원 등 총 6403억원을 편성했다.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 지원비는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지원 422억원 등 총 7085억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기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2조 8295억원 등 총 3조 1548억원을 편성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 편성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 아래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라며,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향해 한 단계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서울시, ‘위기 임산부’ 위한 쉼터 10곳 마련

내달 중 전용쉼터 전국 최초 오픈
주거지원 필요한 임산부에 도움

서울시는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올 12월 중 문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시설 생활이 힘들어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가 준비한 위기임산부 쉼터는 총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1호당 1가구가 생활하는 방식

이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선정한 위기임산부 쉼터 운영 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 기관을 통해 쉼터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임신으로 고민·갈등 중인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SNS(카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수능 끝나도 등교... 마약·도박 예방교육

교육부, 학년말 학사운영방안 발표
연말까지 안전 위해 학생 활동 보호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년말 시기를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 대학수능능력시험 이후부터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유연화한다. 다만, 이 시기에도 등교수업이 원칙이다.

교육부는 답페이크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학년말 학사 운영 내실화 및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년말 학사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수능을 치른 고교 3학년은 비롯해 전국 일선 초·중·고교는 학년 말에도 등

교 수업이 원칙이다. 실기·면접 및 논술고사 등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수강, 승인받지 않은 체험학습 활동 등의 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육부가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을 돕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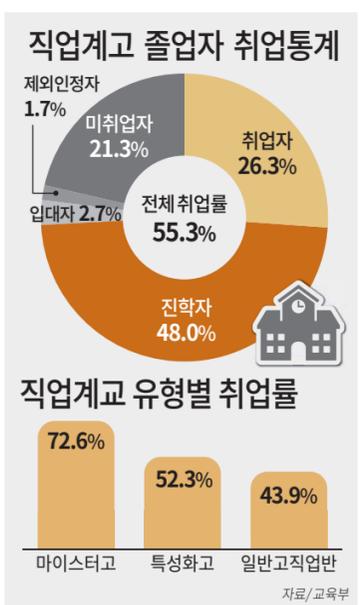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직장 대신 대학 간다

대학 진학률 48%... 4년 연속 증가
마이스터고 취업률 72.6% 가장 높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이 취업 대신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졸업한 학생 가운데 1년 내 일을 관둔 졸업생은 34%에 달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일 기준 직업계고 577개교의 2024년 2월 졸업자 6만3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는 6만3005명으로 이 중 취업한 인원은 4명 중 1명 꼴인 1만6588명이다. 졸업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입대한 사람을 제외한 취업률은 55.3%로 지난해 55.7%보다 0.4%p 하락했다.



반면,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택한 비율은 최근 4년 연속 늘었다. 취업 대신

대학에 입학한 인원은 3만216명으로 전체 졸업자 48%를 차지했다. 진학율은 ▲2020년 42.5% ▲2021년 45.0% ▲2022년 45.2% ▲2023년 47.0%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2.6%로 직업계고 중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52.3% ▲일반고 직업반 43.9%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300명 미만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000명 이상 23.5% ▲300~1000명 미만 11.0% ▲30~300명 미만 34.5% ▲5~30명 미만 26.1% ▲5명 미만 4.8% 순이다.

취업 후 1년 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을 나타내는 유지취업률은 66.2%(1만2849명)다. 10명 중 3~4명은 1년을 버티지 못한 셈이다. 유지취업률은 전년 대비 0.2%p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lhj@

파주 DMZ, 누구나 즐기는 ‘열린 관광지’로

제3땅굴·도라전망대 공모 선정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서 DMZ 관광지인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가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확보된 국비에 시비 6억 원을 추가해 총 11억 원을 들여 관광지의 무장에 접근성을 강화하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35개 지자체, 86개 관광지가 참여한 공모에서 파주시는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1월 7일 (木)
음력 : 10월 7일

수도권 날씨
2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03 | 해질 / 17:28

연천 -2/14
동두천 -1/14
가평 -1/15
파주 -3/13
서울 2/14
양평 1/15
인천 3/13
수원 3/14
용인 3/14
평택 0/15

백령도 8/1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라커룸 파손한 김주형, 오늘 KPGA 상벌위 불출석...소명서 제출
▲허준호 명지대 학생, 전국장애인체전 3년 연속 금메달 /사진 뉴시스

▲류종일 감독 “최종 엔트리 28명 중 마지막 3명 두고 고민 중”
▲ACL2 앞둔 김두현 전북 감독 “절박한 마인드 갖고 싸워야”



▲‘준우승 경쟁’ 김천상무, 포항전 3연승 도전
▲최정미 쓴 새 역사...FA 사상 첫 누적 총액 300억원 돌파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